

2016서울불교박람회 3월24일 SETEC 개막

‘조형불사’ 중심 다양한 기획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2016년 3월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살아있는 전통문화의 꽃’이라는 슬로건으로 ‘마음이 쉬는 법’이라는 의미를 담아 진행된다. 또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해외 바이어 및 관람객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참가업체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작년 처음으로 진행되었던 전통문화우수상품전 및 신상품전은 더욱 큰 규모로 진행되며, 수상한 업체(대상, 우수상 총 3업체)에게는 상패와 상금, 홍보혜택이 주어진다.

▶관련기사 12면

참여분야는 건축, 인테리어 소품, 수행용품, 차·다기, 사찰음식, 옷·액세서리, 수행, 명상, 복지, NGO 출판·웹 IT 디자인, 미디어, 여행, 정례업체 등으로 불교관련 모든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 이번 서울불교박람회는 ‘조형불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획을 준비하고 있다. 전통불사에서 현대적 불사까지 장인들과 관련업체 그리고 불교작가들이 박람회장에 선보인다.

기존 산업전에는 활발하게 불사를 진행하여 현장감을 전해줄 수 있는 사찰건축, 단청, 불상, 불화 관련 업체를 전진배치한다. 또한 서울국제박람회의 특별세션인 붓다아트페스티벌에서는 동국불교미술인회의 불사특별기획전이 열려, 대중적인 불사의 재연이 진행되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박람회 관계자는 “이는 한정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박람회 특성상 해마다 새롭고 다양한 모습을 관람객들에서 선보여 ‘언제나 신선한’ 서울국제불교박람회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에 열린 2015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한국전시산업진흥원으로부터 국제박람회 인증을 받았다. 특히 2013년 불교신문사와 불광출판사가 주관하면서 불교계 대표적 전시행사로서 자리매김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3일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스님들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를 조문했다.

“민주화 자유평등 가치 이 땅에 실현”

총무원장 스님, 애도문 발표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 조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거한 가운데,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23일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스님들과 함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세연을 다하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일생의 노고에 애도의 마음을 함께 한다”며 “민주화에 기여한 공덕은 미래를 열어 주는 바탕이 되었으니, 민주화의 가치가 빛을 내고 투명한 사회의 상상으로 이어져 나라와 국민의 유익함에 다다르고, 일평생 개혁과 민

주화의 열의는 미래의 성취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이제 다시금 어려운 시절에 민주화를 갈망했던 사람들의 마음으로 돌아오신 것, 그들의 마음에 머무르는 것이니, 언제나 모두에게 지혜의 힘이 되어 달라”며 “명복을 비는 수많은 추모의 마음이 이렇듯 있었으니, 민주화와 자유평등의 가치가 이 땅에 실현되고 모두 함께 향기로운 자취에 감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면

이에 앞서 총무원장 스님은 22일 애도문을 발표하고 김 전 대통령의 명복을 기원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에 애도의 마음을 함께 한다.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김 전 대통령은 민주화운동의 거목이었고, 문민정부를 출범하여 한국사회에 개혁과 변화를 이끌어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평생 지향하고자 했던 민주화와 자유, 평등의 가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임태규 기자 che11@bulgyo.com

아르헨서 전법...“정진 필요성 절감”

‘3급 승가고시 수석’ 성제스님
국제불교학교 1기 졸업생으로
3년간 고려사서 교민들 포교
현지 젊은이들에게 참선 지도
“한국불교 홍보 불사하고 싶다”



었다. 스님은 현지인 포교에 눈을 돌렸다. 선 수행에 관심 있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수행그룹을 새로 결성했다. 스님은 ‘다르마 프렌드’라 부르는 이들과 함께 매주 2회 참선수행을 하고, 스페인어로 번역된 승산스님의 책을 읽었다. 그 인연으로 한 젊은이는 지난해 대전 무상사에서 한 달간 공부했고, 이번 동안거 결제에 참여하기 위해 최근 입국한 청년도 있다. 진지하게 불교를 대하고, 수행하면서 변화가는 청년들을 보며 스님도 놀랐다고 한다.

고시와 법계 품서로 오랜 시간 사찰을 비워둘 수 없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귀국한 스님은 “현지인에게 참선지도도를 하면서 정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선 수행에 더 매진할 뜻을 밝혔다. 또 기회가 된다면 스페인어로 한국 불교를 소개하는 불사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몸은 한국에 있지만 고려사에서 전법활동을 늘 염두에 두고 있는 성제스님은 “국제불교학교 재학 중 미 동서부 지역 연수를 하면서 한국사찰과 현지 선센터를 방문했던 경험을 살려 아르헨티나로 왔는데 이곳은 미국보다 상황이 열악하다”며 “남미가 워낙 멀어 큰스님 초청법회 한번 열기도 쉽지 않다. 중당에서 관심 갖고 지원 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어현경 기자 eonald@bulgyo.com

국제불교학교 1기 졸업생으로, 2013년 아르헨티나 고려사서 교민과 현지인 포교를 전담했던 성제스님(사진)이 지난 10월 치러진 3급 승가고시에서 1등을 차지했다. 지난 23일 스님은 정덕법계를 품수받고, 이에 앞서 고시위원장 지안스님으로부터 성적우수자 표창과 장학금도 받았다. 스님은 “승가고시 준비하면서 출가해서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고, 눈술 관련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도 많은 공부가 됐다”며 “좋은 성적까지 거두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국제불교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르헨티나로 떠난 성제스님은 승가고시와 법계 품서식에 참여하기 위해 3개월 전 귀국했다. 3년간 방부에노스아이레스 고려사에서 교민과 현지인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면서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냈다.

국민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이곳에서 포교 활동은 녹록치 않았다. 사찰을 찾는 교민들 대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으로, 50여개 한국 교회에서 젊은 세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 청소년과 젊은 층은 만나기도 어려

영남 재가불자들 동안거 정진 돌입

26개 사찰 2개 단체 2000여명...홍법사서 입제식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진스님)와 불교신문영남본부 공동으로 실시하는 재가안거 수행이 동안거 결제일인 지난 26일부터 90일간의 기도정진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20일 각 사찰에서 모인 500여 명의 재가자와 스님들이 홍법사에서 공동 입제식을 봉행했다. ▶관련기사 5면

이번 결제부터는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수진스님이 동맹대서 지도하는 국제선센터와 포교사단이 참여해 사찰 신도 중심에서 단체로 외향이 넓어졌다. 또 부산 외에 울산, 창원 등 다른 영남지역에서도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재가안거 수행에는 26개 사찰과 2개 단체에서 2000여 명이 참여했다. 회장 수진스님의 사찰 해인정사가 지난 하안거 결제에 이어 또다시 300명으로 가장 많이 참여했다. 재가

안거 수행을 실무적으로 이끌고 있는 목종스님의 대광명사가 200명으로 두 번째 많은 신도가 신청했으며, 선암사, 영주암, 관음사, 홍법사, 미타선원 등 조계종연합회 간부들이 주지로 있는 사찰들이 100명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단체로는 처음 이름을 올린 포교사단과 동맹대 국제선센터도 각각 77명, 20명이 신청해 높은 참가율을 보였다. 일요법회와 개인 신청자도 20명을 넘어서는 등 이번 동안거는 다양한 층의 참여가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재가안거수행은 석달 후인 내년 2월22일 해제한다. 중간에 다시 한번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반결제 법회를 봉행한다. 그 자리에서는 참선 기도 염불 등 각 수행별로 지도법사 스님들로부터 수행을 지도받고 완수한 정진을 다짐하고 격려한다. 90일 수행이력 성취시 안거증이 수여된다.

부산=박부영 기자 chisan@bulgyo.com

2016 불교신문 신춘문에 공모... 12월9일 마감



(경허선사 진영)

경허선사 유묵, 유품 찾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덕숭총림 수덕사는 근대한국 불교의 중흥조이신 경허선사의 법맥이 직계로 전해지는 선의 종찰입니다. 때로는 호랑이보다 무섭고 강렬하며 때로는 꽃보다 향기롭고 부드러운 경허선사의 선풍이 오늘날 한국선 불교의 기저에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선사의 법을 잘 지니고 받들기 위해 수덕사에서는 경허집을 발간하고, 선원의 수행현장과 학술모임 등을 통해 꾸준한 정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허선사의 친필 유묵과 유품은 전해오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수덕사에서는 경허선사의 유묵과 유품을 찾아서 보존하는데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본사에서 어렵게 구하여 전임방장 원담스님께서 보관하시던 경허선사 원본시 분철본은 스님의 입적 이후 소재를 알 수 없습니다. 원담방장스님께서 생전에 누구에게 기탁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분철본은 약간 두꺼운 한지에 쓰여졌으며 작은 오동나무 상자에 보관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분철본을 보관하고 있거나 소재를 알고 계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경허선사의 유묵이나 유품을 소장하고 계신분은 수덕사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덕사에서는 성심껏 맞이하고 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덕숭총림 수덕사

연락 및 문의 041-330-7700